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3년도 표어 ⊕

그리스도인, 작은 이들의 벗(마 25 : 40, 레 19 : 18)

⊕ 행동지침 ⊕

- 1. 말씀과 비전으로 하나 되는 교회
- 2.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
- 3. 기도와 전도의 사명을 다하여 부흥하는 교회

† 발행인 : 박노철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 (02) 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seoulchurch.or.kr

에스더서 강해

하만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에 5:9-14)

세상을 살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나며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만나든 분명한 성경적 원칙과 기준을 고수한다면 악한 사람들도 우리 인생의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의 나쁜 돌도 자신의 옥을 다듬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다른 사람의 허물과 실패도 자신을 수양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만이 누구입니까? 그는 대 페르시아 제국의 공인된 2인자입니다. 모든 신하들과 백성들은 마치 왕에게 하듯 무릎을 꿇고 하만에게도 절했습니다.

하만은 친구들에게 자기의 큰 집과 재산과 권력, 심지어 자녀들이 많은 것과 왕후 에스더에게 왕과 자신만 초대 받은 것을 자랑합니다 (11, 12절). 정말 하만의 앞에는 거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곧 교만은 파멸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하만은 알지 못했습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명된 자라 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잠 21:24)”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약 4:6)”

“유다 사람 모르드개가 대궐 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하지 아니하다.(13절)”

교만한 마음으로 가득찬 하만은 유일하게 자기 앞에 고개를 숙이지 않는 모르드개를 죽이지 않고서는 만족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개를 죽이기 위해 오십 규빗이나 되는 사형틀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형틀에 하만이 달려 죽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교만한 자의 비참한 말로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교만은 그림자라도 떨쳐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결코 교만해 질수 없는 사람들인 것을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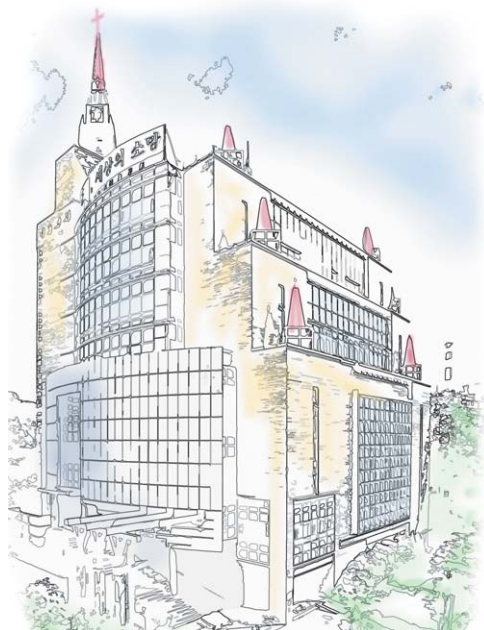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엡 2:8-9)”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겸손의 길로 나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박노철 목사
(서울교회 담임)



Learning Wisdom by the Follies of Haman

(Esth. 5:9-14)

We cannot live our life by meeting only good men in the world. But if we follow the principle and standard of the Bible, whoever we meet, we can learn wisdom by the follies of their wickedness.

The meaning of learning wisdom by the follies of others “A bad stone of mountain can be used to trim one’s own jade” is that other’s folly and failure can be helpful for one’s own discipline.

Who was Haman? He was second in command of the Great Persian Empire. All his lieges and people knelt and bowed down to Haman as they did to the King.

Haman boasted to his friends about his vast house, wealth, power, and even his many sons. Moreover, he boasted that he was the only one to be invited to the banquet that Queen Esther gave (vv. 11, 12). Really there was nothing that Haman feared.

Nevertheless, a problem began to happen because Haman did not know that his arrogance would lead to destruction.

“The proud and arrogant man—“Mocker” is his name; he behaves with overweening pride” (Prov. 21:24).

“God opposes the proud but gives grace to the humble” (James 4:6).

“When he saw the Jewish Mordecai sitting at the king’s gate, Haman was not satisfied with the entire thing that was happening (v. 13).

Haman who was full of arrogance said, “If he would not murder Mordecai who neither rose nor showed fear in his presence, he would not be satisfied.” And then, he had the gallows built, 50 cubits, in order to murder Mordecai. Who knew that Haman had himself hanged on it? One’s last miserable day of the proud is just like this.

We should throw off arrogance, even though it is a shadow. The Apostle Paul said that we should never be arrogant people.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and th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Eph. 2:8-9).

My beloved Christians!

We are the disciples of Jesus Christ whom we follow. By emulating Jesus who came as a king of modesty, obeyed and died for us, and by going forward to the modest way, I sincerely pray that you will be used for God’s glor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PASSION WEEK

“그가 찢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가상칠언(架七言)을 중심으로
25(월)~30(토) 오전5~6시, 강사: 박노철 목사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가 3월25일(월)부터 30일(토)까지, 오전 5시부터 6시까지 본당에서 박노철 담임목사를 강사로 열린다. 금년도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는 가상칠언(架七言, 십자가 위에서 하신

예수님의 일곱 가지 말씀)에 관한 성경 말씀에 따라 설교한다. 사순절의 마지막 한 주간인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열리는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여 주님의 부활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바란다.

주일 예배중 성도 차량 무더기 견인

"주차허용구간 차량도 견인" 교회, 구청에 이의제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우려.. 성도를 각별한 관심 필요



버스정류장에 정차하는 버스기사들에게
음료를 대접하는 차량부 섬김위원들

교회 주변 주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당회가 특별안내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본지 3월10일자 2면 기사 참고) 공교롭게도 교회가 이를 공지한 날, 교인 차량 여러 대가 무더기 견인조치되는 일이 발생했다. 지난 주일(10일) 오후 2시 반쯤 교회 앞 삼성로 은마아파트쪽 갓길에 세워 둔 우리 교인 차량 3대를 포함, 모두 4대의 차량이 강남구청 주차관리 담당 직원들에 의해 강제 견인조치를 당했다.

이를 본 일부 장로들과 차량부 섬김위원들이 항의했지만, 주민 민원이 들어왔다며 은마아파트쪽에 세워둔 차들을 모두 견인해가려 했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말리던 성도가 넘어지는 등 마찰이 생기자, 구청측은 4대만 견인하고 추가 견인은 하지 않았다. 견인당한 4대중 2대는 아파트 진출입로에 다소 근접한 곳이어서 문제의 소지가 없지 않았으나, 나머지 2대는 평소 주일 주차가 허용되던 곳에 댔음에도 견인을 해간 것이다.

교회는 구청측에 허용구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도 견인을 한 점에 대해, 그것도 예배시간 도중임에도 견인한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다.

그러나, 민원이 제기되면 이를 근거로 견인을 강행하는 것이 관할 구청측의 태도여서,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까 우려스런 상황이다.

교회는 더이상 불미스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갖고 ▲ 삼성로 양 갓길 주차시 주차금지구간 숙지, ▲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 ▲ 중직자들은 의무적으로 강남구민회관 주차 등 유의사항을 꼭 지켜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2013년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

3월 19일(화) 오후 7시 30분, 101호

교육위원회(위원장:홍성주 장로)주관으로 교사교육 및 연합기도회가 19일(화) 오후 7시 30분 웨스터 민스트홀(101호)에서 열린다. 이날 특강은 김재원 집

사(사랑의 교회, KBS 아나운서, 현 '아침마당' 진행자, 국문학 박사)를 초청하여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 이해'라는 주제로 전체강의를 진행한다. 전체강의 후에는 국별로 모여 워크샵 및 기도회를 가진다. 교회학교 교사뿐만이 아니라 관심 있

| 구분 | 시간 | 담당 | 주제 | 강사/약력 |
|-----------------|--------------|--------|-----------------------------|----------------------------------|
| 교육부서 전체특강 | 오후 7:30~8:30 | 김재원 집사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언어이해 | 현)KBS 아나운서, 중앙대 대학원 박사 현)아침마당 진행 |
| 주제별 특강및 워크샵(1국) | 오후 8:40~9:30 | 김안성 목사 | 어린이를 위한 목회적 돌봄 | 교육1국 유년부 교역자 |
| 주제별 특강및 워크샵(2국) | 오후 8:40~9:30 | 이종진 목사 | 지피지기 백전백승- 청소년 신앙교육의 기초 다지기 | 교육2국 고등부 교역자 |
| 주제별 특강및 워크샵(3국) | 오후 8:40~9:30 | 오세광 목사 | 젊은이를 세우는 헬퍼쉽 | 교육3국 청년2부 교역자 |

목사님, 궁금해요!

이종운 목사 성경난해구절 해설 [80]

(문 79) 사무엘 시대에 벤세메스에는 5만이 넘는 인구가 있었다고 했는데(삼상 6:19) 그것이 사실인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왜 살육하셨습니까?

(답) 주전 11세기에 인구 5만을 가진 도시는 흔히 볼 수 있었던 도시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삼상 6:19에는 그날 벤세메스에서 죽은 자가 오만 칠십명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어순은 이 말을 두가지로 읽을 수 있습니다. Sibim 'is wah missim 'elep 'is(70인 그리고 5만명) 또는 hamissim 'elep 'is wa sibim 'is(5만명 그리고 70인)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70인역에서는 hebdomekonta andras kai Pentekonta chiliadas andron(70명 그리고 5만명)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1세기 말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Josephus)의 Antiquities 6.1.4에 의하면 벤세메스에서 죽은 자는 7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5만명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거기에 몇 개의 히브리어 사본에도 5만이 완전히 없습니다. 그러므로 원본이 없는 현 상태로는 어느 것이 사실과 부합된 것인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당시 여호와와 케를 들여다 본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벤세메스 사람들이 살육당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사본을 만들 때 필경사들의 과오로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나 호기심을 갖고 들여다 본 사람의 수가 5만명이 넘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수레로 법궤를 옮길 때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소들이 뛰므로 옷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잡았다 하여 하나님의 진노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는 말씀으로 미루어 보아 거룩한 것을 속된 방법으로 들여다 본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함부로 만지거나 대할 때 하나님은 가차 없이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민 4:20에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하신 말씀을 범한 죄 값으로 그들에게 재앙이 내린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가르치면서 거룩한 것을 세속화하려는 행위는 용납치 않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주 계속)

성경통독자 시상 오늘 찬양예배 시간에

- 타이핑 - 김영예 집사(2교구)
- 5독 - 서영세 집사(5교구)
- 2독 - 이은영 권사(5교구) 노송성 장로(6교구) 이영옥 권사(6교구)
- 1독 - 최학인 장로(5교구) 김숙자 권사(6교구) 이남성 집사(9교구) 곽태수 집사(14교구) 백도환 집사(16교구)

만민에게 전도

천성을 향하는 힘찬 발걸음들로...



정병무 은퇴장로
(아브라함 선교회장)

가장 좋은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평생을 살아가는 것의 연속이 인생이라 할 것입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 세상 것과 저 세상의 것으로 구분할 것입니다. 전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요, 후자는 영생복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영안으로만 바라볼 수 있는 그 곳은 약속한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는 영원한 천국이라고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들은 구원의 감격으로 오직 주님만을 뜻대로 바라보며 젊음의 패기로 넘쳤다고 자부 하였는데, 어언 저마다의 생애가 석양에 걸려있음을 돌아보며 짐짓 놀라지 않을 수 없답니다.

노을 앞에서 새날 새아침을 기다려야하는 허전함으로 못내 아쉬움을 지워 버릴 수 없는 우리들 인생이기에 힘찬 발걸음들로 시온의 대로, 승리의 천성 길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교회에는 이 노년들에게 거룩한 사랑의 공동체가 몇 개가 있습니다. 제일 연세가 높은 아브라함 선교회와 사라 전도회가 있고, 남녀혼성모임으로 소망부가 있습니다. 또한 은빛 찬양대(수요1부)는 만65세부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선교회원 자격은 만71세 되는 해(1942년생)부터 천국에 가는 그날 까지가 되며, 부부 동반 회원이 될 수 있고 여자는 준회원이 됩니다.

우리들은 노익장을 뽐내고 과열렬한 믿음으로 하나가 되고, 후진들에게 귀감이 되어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공동체로 자리매김 하고자 순종의 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더욱 보람 있고 소망이 넘쳐나며, 아름다운 여생, 후회 없는 여생, 소망이 넘치는 여생을 꾸미려는 이 거룩한 모임에 동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수 있다”는 믿음으로 승리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연락처: 010-8348-9798)



소망부 여성수련회



소망부 성경퀴즈대회

만민에게 전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최광성장로
(모세 선교회장)

모세 선교회는 2013년도 사업 목표 '교회를 사랑하며 어르신 섬김'으로 정하고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도 교회 어르신들을 겸손히 섬기는 마음으로 사라 전도회, 아브라함 선교회, 소망부, 은빛 찬양대의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작은 정성을 전했습니다. 우리교회가 창립될 때 어르신들의 눈물이 벽돌이 되어 지어진 그 기도와 헌신이 얼마나 소중한 전통일진데, 안타깝게도 잊혀져가고 있습니다.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를 사랑하고 어른 섬기는 아름다운 마음이 전통이 되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조심스럽게 작은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사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 십자가에 동참하는 심정으로 교회 주변 청소를 하며 다시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랑을 확인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까지도 청소하였습니다. 모처럼 주님이 주신 봄을 만끽하며 서로의 형제우애를 다짐하는 아름다운 교제의 장이기도 하였습니다. 모세 선

교회는 60세(53년생)~65세(49년생)에 해당하는 교우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더욱 낮은 곳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세 선교회는 지하철전도, 병원전도, 노방전도를 계획하고 있으며 명화감상(마르틴 루터), 순천세계정원박람회참관, 산상예배 등으로 올바른 신앙관과 친목행사를 통해 섬김과 봉사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약한 자를 세우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모세 선교회원들도 사명을 감당하고자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를 굳게 다짐하오니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3/03/02 16:58

사순절의 기도

십자가의 길

이용태 목사(목회자신학세미나 동문)

죄로 죽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모진 고난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여
그 무엇으로
주님의 그 사랑 값오리까

이제는 죄악된 삶
모두 다 분토처럼 버리고
주님 따라 가오니
함께 하여 주소서

죄악속에 뒹구는 한 영혼 구원하시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 생각하며
나도 그 생애길 따라가오니
나를 받아주소서

내 삶의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복된 삶 되게 하사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천국시민양성 - 고등부학부모기도회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처럼



서양지 집사(30교구)

저는 올해 하나님의 은혜로 대학에 입학한 새내기 딸과 올해 고교 3학년 수험생 아들을 둔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는 작년 이맘때 고3 학부모가 되었고 매일 매일이 걱정과 불안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음은 갈수록 조급해져서 모든 기도의 자리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와 금요일기도회에 나갔고 고등부 학부모기도회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학부모기도회에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의 불안한 마음을 치유해주셨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저희 학부모기도회에서는 고등부 지도 목사님과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모여 서로 공감하고 위

로반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대학합격을 위한 우리의 기도제목은 점점 더 성숙해져 아이들의 비전과 믿음 그리고 성품에까지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항상 정의로우며 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한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처럼 무릎으로 키우길 소원하면서 기도와 무조건적 사랑으로 양육할 때에 아이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저는 오히려 기도의 자리를 늘 지켰던 고3 시기가 가장 편안하고 아이와의 관계도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서울교회 학부모 여러분, 고등부 학부모기도회에 오셔서 함께 기

도합시다. 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특히, 중보기도의 힘을 믿으세요! 주일 12시40분 504호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



수험생을 위해 기도하는 학부모와 교사들

천국시민양성 - 70인 전도대 수련회 후기

능력있는 삶



최유진 집사 (70인 전도대 화평팀장)

2월 19일 70인 전도대원 106명이 아가페타운으로 영성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서로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고 느꼈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며 주님의 임재를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배경에 전도사님은 '능력 있는 삶'이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심장으로 전도와 구제를 하며, 환경 때문에 수시로 변하는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사단이 주는 세상의 육적인 것로부터 속고 있는 우리의 삶을 말씀과 기도와 봉사로 이겨내야 한다는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어 오세광 목사님의 "성령이 오셨네"의 말씀과

뜨거운 찬양이 이어졌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며 진심으로 서로를 위해 중보하는 전도대로서 하나되는 재무장의 시간이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후6:10)' 하는 말씀을 되새기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가가호호 복음을 들고 나가는 70인 전도대는 주님이 기뻐하는 자들이며 참 귀한 하나님의 보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때 우리의 영혼도 같이 소생하는 은혜가 전도의 현장에 피어남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전도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한가정 한선교사 후원자

이은옥 최금봉 박동률(이예리자) 박정선
현재 257명 총계 18,520,000원

비전2020 운동 후원자

홍승전 집사 누계: 323명 14개 단체 5000원 기준 1016구좌

등정

- 이종윤 원로목사는 19일(화) 탈북자 복송반대 3000목사단 상임 회장단 모임에 참석한다. 21일(목) 서울,경기지역,무지역포함 (22개 노회) 은퇴목사 정기모임 설교를 한다.
- 특남: 12교구 김현중성도 일구연성도 가정 (임상현 장로 서회 숙 권사 차녀)
- 주간식당봉사: 루디아전도회(3.17) 보보전도회(3.24)
- 금주의 식사: 교회제공



지난 주 우리교회에서는 제29회 기기 군중목사 후보생 수련회가 있었다.

각 부서 회계실무 교육

오늘 오후 3시30분, 202호

교회 각 부서의 바른 예산 집행, 일관성 있는 회계를 위해 오늘 오후 3시 30분 202호에서 각 부서장, 회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회계실무교육을 갖는다.

강사는 신용식 장로(재정위원장)과 오광환 장로(재정위원회 서기)가 담당한다. 각 부서의 해당자들은 필히 참석하기 바란다.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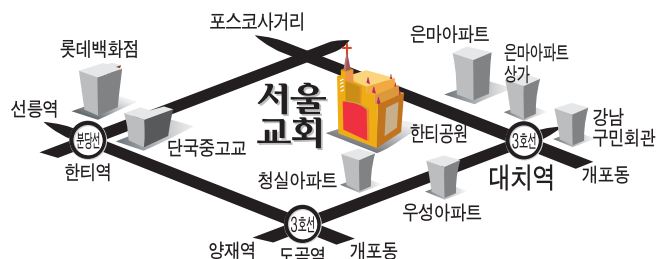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1. 3월 25일~30일까지 열리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에 모든 성도들이 참석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2. 교회의 주차 문제가 잘 해결되어 우리교회가 이 지역의 모본이 되며 칭송을 받아 건강한 교회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3. 병상에 있는 서흥회 선교사님의 빠른 치유가 일어나며 아시아 권에서 복음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도록

■ 예배 및 집회

| 구분 | 시 간 | 장 소 |
|-----------|-------------------|------------|
| 주 일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9시 |
| | II 부 예 배 (영어동시통역) | 오전 11시 20분 |
| | III 부 예 배 | 오후 2시 |
| | 찬 양 예 배 | 오후 5시 |
| | English Worship | 오전 11시 15분 |
| 수 요 예 배 | I 부 예 배 | 오전 11시 |
| | II 부 예 배 | 오후 7시 |
| 새 벽 예 배 | 오전 5시 30분(매일) | 본 당 II 층 |
| 금 요 기 도 회 | 오후 8시 | |

■ 교회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